

碩士學位請求論文

英語教育의 實態와 改善方案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順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璨 湖

1991年度

英語教育의 實態와 改善方案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璨 湖

指導教授 金 順 澤

1991年 7月 日

金璨湖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審 金鍾勳



副審

副審

高 泰 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론적 고찰	3
2.1 영어교육의 목표	3
2.2 영어교육의 최근 경향	6
제 3 장 영어교과활동의 실상과 과제	9
3.1 조사방법 및 대상	9
3.2 영어교과활동의 분석	10
3.3 영어교과활동의 과제	17
제 4 장 현장 영어교육의 문제와 해결책	24
4.1 교수·학습상의 문제와 해결	24
4.2 교재의 문제와 해결	29
4.3 평가상의 문제와 해결	34
4.4 교사의 문제와 해결	37
제 5 장 결 론	42
참고문헌	45
영문초록	47
부 록 I	50
부 록 II	56

표 목 차

[표- 1] 영어학습의 흥미도	10
[표- 2] 영어과목에 대한 인식	11
[표- 3] 영어학습의 이해도	12
[표- 4]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13
[표- 5] 연습에 관한 태도(1)	14
[표- 6] 연습에 관한 태도(2)	15
[표- 7] 복습에 관한 태도	16
[표- 8] 학습의욕의 비교	17
[표- 9] 중점 교수 · 학습의 분야	25
[표-10] 듣기 · 말하기 학습 경향	27
[표-11] 분야별 흥미도	28
[표-12] 교재의 난이도	30
[표-13] 듣기 · 말하기 평가 여부	35
[표-14] 영어 교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40

제 1 장 서 론

오늘날 세계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국제사회가 복잡해져감에 따라 국가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력의 강약이나 국토의 대소를 막론하고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교과과정으로 외국어, 특히 영어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영어과목을 교과과정에 넣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는 국제화 시대의 중심지로서 타도보다도 한층 더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어 교육 현장에서도 효과적인 영어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영어교육을 생각해 볼 때,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해 학습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교수이론을 개발하려고 해 왔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빈약하고 특히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보다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가 더욱 뒤떨어져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단지 학습자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현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영어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초기에는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영어학습에 임하다가 약 한 학기 정도 지나가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흥미를 잃어감에 따라 영어 수업시간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은 물론 시설이나 교육환경에 따른 여러가지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입시제도와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영어 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영어학습에 흥미와 의욕을 잃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고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의 영어 교과 활동에 대한 흥미 및 태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항목별로 비교, 분석, 검토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 영어 교육의 개선책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영어교수법 연구와 국제화 시대에 제주지역 영어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영어교육의 목표와 최근 영어교육의 경향을 살펴보고, 제3장은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영어 교과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제4장은 현장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교수·학습상의 문제, 교재의 문제, 평가상의 문제, 교사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그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끝으로 제5장에서 앞에서 고찰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영어교육의 목표

오늘날 각국의 문화와 학문은 국민적 국가적 범위를 이미 벗어나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세계의 학술서 중 대부분이 영어로 기술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문화유산의 가치있는 양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차지하는 영어과목의 비중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국제화, 개방화 시대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국제적 교류를 빈번히 해야 하고, 선진 국가의 문물을 이해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게 되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교과목의 목표(objectives), 내용(content), 교수방법(teaching method), 평가(evaluation)에 대한 계획이며, 교수요목을 기초로 해서 왜(why), 무엇을(what), 어떻게(how)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생에게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교육목표와 내용을 명시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계획, 학습지도와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 교육 과정이라고 할 때 그 내용 속에는 당연히 영어과목을 가르치

는 목적과 이유, 방향 등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무슨 목적으로 영어를 왜 우리 나라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만약 가르치기로 결정된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영어교육의 총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정부, 응용언어학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밝히면서, 특히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Corder(1973)의 견해를 연상케 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여러가지의 시대적 요청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 보강되었는데²⁾ 영어과 교육과정은 내용교과가 아닌 기능교과이기 때문에 대체로 영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하는 언어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와 외국 문화 이해증진을 통한 우리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의적 목표 달성에 그 초점을 두어왔다. 가장 최근의 제5차 영어과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이런 사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외국어과 교육과정 속의 영어과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문화를 폭넓게 이해 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문화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영어교육의 목표를 세운 이론적 근거는 아마도 서구 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가령 Rivers(1968)는 외국어 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음 7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S.Pit Corder,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Harmonsworth : Penguin, 1973), p. 13.

2)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 ① 교수요목기; 1946. 11~1954. 3
- ② 제1차 교육과정기; 1954. 4~1963. 1
- ③ 제2차 교육과정기; 1963. 2~1973. 1
- ④ 제3차 교육과정기; 1973. 2~1981. 11
- ⑤ 제4차 교육과정기; 1981. 12~1987. 3
- ⑥ 제5차 교육과정기; 1987. 3~현재

- ① 외국어 학습을 통해 학생의 지적능력을 개발한다.
- ② 외국문학과 철학공부를 통하여 개인의 교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 ③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국어의 기능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 ④ 외국어 독해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최근의 외국 저술, 연구결과 및 기타 제반 정보에 뒤지지 않도록 한다.
- ⑤ 학생들이 또 다른 언어적, 문화적 틀(framework)속에서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 ⑥ 해당 외국어를 상용하는 국민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가적 상호이해를 갖게 한다.
- ⑦ 해당 외국어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두나 서신으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³⁾

또한 Huebener(1956)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모국어 이외의 의사소통의 습득, 외국 국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적 흥미·감상력·자기표현력을 기르는 것이라 설정하고 있다.⁴⁾



위에서 언급한 영어교육의 목표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제한된 구문과 어휘를 사용한 글을 읽고 이해하며, 짧고 쉬운 영어로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할 수 있다. 또 영어학습을 통하여 영어 상용 국가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고 국제적 이해와 안목을 넓혀 우리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Wilga M. Rivers,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68), p. 8.

4) Theodore Huebener, *How to Teach Foreign Language Effectivel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9), p. 3.

2.2 영어교육의 최근 경향

최근에 이르러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의 영어교육은 모방과 반복학습을 통하여 문법과 번역을 중시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심리학, 교육학 등 인접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고도의 인지적 학습과정과 인본주의적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능력인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그 교수요목도 개념 및 기능위주(notional-functional)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오늘의 영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전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문법·번역식 교수방법으로 입시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하고서도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병어리 교육”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유효적절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이론적, 분석적 지식, 다시 말해서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습득한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인 이른바 의사소통능력까지도 심어주어야 한다.

신성철과 박의재(1987)도 동의하듯이, 의사소통능력이라 하면 문법성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고 언어표현의 심리언어적, 사회 문화적인 의미의 이해와 실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속에서 적격한(appropriate) 영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ulston(1974)은 언어사용의 사회적 규칙으

로⁵⁾, Widdowson(1978)은 언어사용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한다.⁶⁾ 또한 Canale(1983)은 의사소통능력에는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문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그 문장을 적절히 연결하고 쓸 수 있는 능력, 학습자들에게 의사전달활동을 도와주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그리하여 최근에는 의사전달 중심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고,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도에서도 “의사소통능력배양을 위한 전도 중등교사 연수집회”(1988)를 가져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Situational Everyday Conversation(지도자료 제4집)”을 발간했고, 1990년 우당도서관에서 한국 중등 영어 교육 연구회(KOSETA)와 제주도 중등 영어 교육 연구회(CHEJUSETA)의 주관으로 “제4회 생활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중등 영어 교육 workshop”을 가져 시범수업 및 사례발표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영어교육의 목표 및 경향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 바, 앞으로 제주도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은 특히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면서 한편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영어교육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영어 교육 현장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이론적 배경과는 달리 여러가지

5) Christina B. Paulston, “Linguistic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Vol. 8, No. 4, 1974, pp. 348-49.

6) Henry G. Widdowson,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Cambridge: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18.

7) M. Canale,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Richards, J. C.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1983, pp. 7-14.

사정상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법이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영어를 오래 배우고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겠다.



제 3 장 영어교과활동의 실상과 과제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영어교과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이유로 필자는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1,200 명을 대상으로 영어교과에 대한 관심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는 바, 여기서는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교과활동의 실상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3.1 조사방법 및 대상

필자가 제주도 영어교과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방법과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간: 1990.3.1~1991.3.31

(1) 계획설립: 1990.3.1~1990.3.31

(2) 문헌조사: 1990.4.1~1990.6.30

(3) 조사방법: 설문지법으로 논문자료를 위해 필자가 직접 제작한 설문을 가지고 영어 교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했으며, 그 중 설문지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응답을 보이거나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하고 각 설문별로 나타난 반응도를 중·고등학교별, 그리고 각 학년별로 구분하여 백분율의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2) 조사대상: 신뢰도와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는 제주시 지역 1개교, 서귀포시 지역 1개교, 북군 지역 1개교, 남군 지역 1개교를 선정하여 1.

2.3 학년 각각 50명씩을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인문계 2개교, 실업계 2개교, 1,2,3 학년 각각 50명씩을 대상으로 했다.

3.2 영어교과활동의 분석

우선 영어교과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어학습이 흥미있는 지를 물어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1) 학생은 영어수업이 어떻습니까?

[표-1] 영어학습의 흥미도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대단히 재미있다	24.6	15.4	13.2	10.1	10.4	5.4	13.2
재미있다	43.3	22.6	15.8	13.6	12.1	7.9	19.2
그저 그렇다	23.9	40.9	40.5	42.1	39.2	39.7	37.8
지루하다	3.7	18.1	23.9	28.9	30.1	36.4	23.5
매우 지루하다	4.5	3.0	6.6	5.3	8.2	10.6	6.3

[표-1]에 제시된 가능한 대답 중에서 “대단히 재미있다”와 “재미있다”에 반응을 나타낸 학생은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이고 “지루하다”와 “매우 지루하다”에 반응을 보인 학생은 이미 영어에 대한 학습활동에 흥미를 잃은 학생이라 할 때,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은 처음 영어를 배우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67.9%로써 흥미를 잃은 학생 8.2% 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년 정도 영어를 배워 온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영어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거

나 매우 피로운 시간이라고 여기는 학생이 21.1%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상급학년일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영어과목이 어려운 지 또는 쉬운 지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2)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어떻습니까?

[표-2] 영어과목에 대한 인식

내 용	중 · 고 별 학 년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더 쉬운 편이다	25.4	16.3	15.2	8.2	6.4	4.9	12.7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이다	38.8	35.2	34.3	26.4	23.8	18.4	29.5
더 어려운 편이다	35.8	48.5	50.5	65.4	69.8	76.7	57.8

[표-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어렵게 여기는 학생이 57.8%로 과반수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더 쉽다고 느끼는 학생은 불과 12.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중학생들이 영어를 다른 과목에 비해 더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두드러져 그 분포가 1학년의 경우 65.4%, 2학년의 경우 69.8%, 3학년의 경우 76.7%로 나타나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표-2]에 나타난 결과를 [표-1]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표-1]에서 영어시간이 지루하거나 괴롭게 여기는 학생의 비율을 모두 합쳐도 29.8%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표-2]에서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게 느끼는 학생의 분

또는 57.8%에 이르고 있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어과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3) 학생은 영어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표-3] 영어학습의 이해도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거의 전부 이해한다	13.5	5.1	6.3	5.8	4.9	5.1	6.8
거의 전부 이해되나 종종 모르는게 있다	67.9	67.4	50.6	46.2	40.1	35.6	51.3
거의 이해가 안된다	14.9	20.9	25.4	30.1	32.6	36.7	26.8
전혀 이해가 안된다	3.7	6.6	17.7	17.9	22.4	22.6	15.1

[표-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선생님의 설명을 거의 이해하나 종종 모르는게 있다고 한 학생이 전체의 51.3%로써 학년별로 큰 차이없음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거의 전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위그룹의 학생은 6.8%를 나타내고 있어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는 학생은 모두 합쳐 전체의 58.1%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6.8%의 학생은 거의 이해가 안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도 15.1%에 이르고 있어,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41.9%의 학생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학습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질문은 수업시간에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다.

4) 영어수업시간에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4]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선생님께 질문한다	25.6	16.8	16.2	17.6	15.4	18.6	18.4
친구에게 물어본다	32.1	49.5	50.6	51.4	52.8	46.4	47.1
참고서를 본다	26.6	19.9	21.2	23.2	25.4	27.9	24.0
모르는 채 놔둔다	15.7	13.8	12.0	7.8	6.4	7.1	10.5

[표-4]의 결과에서 보면 모르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친구에게 물어본다”가 전체 47.1%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참고서를 본다”로 24.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께 질문한다”고 반응을 보인 학생은 18.4%에 지나지 않고, 또한 모르는 채 놔둔다는 학생도 10.5%나 되어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간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급학년이 될수록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더 두드러져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선생님보다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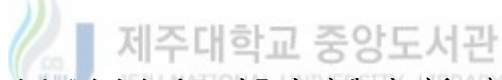
다음 두개의 질문은 연습에 관한 것이다.

5) 학생은 영어수업시간 전에 연습을 합니까?

[표-5] 예습에 관한 태도 (1)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반드시 하는 편이다	12.6	9.8	12.5	6.4	4.3	3.9	8.2
대체로 하는 편이다	20.3	14.5	9.5	5.1	4.2	2.1	9.3
거의 반반이다	60.5	66.3	56.7	52.1	59.6	67.8	60.5
거의 안한다	3.6	4.8	13.5	27.5	22.3	19.8	15.3
전혀 하지 않는다	3.0	4.6	7.8	8.9	9.6	6.4	6.7

[표-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과반수 이상에 이르는 60.5%의 학생이 학년에 관계없이 수업전에 예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뚜렷한 생각이 없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2.0%에 이르는 학생("거의 안한다"와 "전혀 하지 않는다"를 포함)이 대체로 예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성있게 예습하는 학생("반드시 하는 편이다"와 "대체로 하는 편이다"를 포함)은 전체의 17.5%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표-2]에서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쉬운 편이다"에 반응을 보인 학생이 12.7%이고, [표-5]에서 "예습을 반드시 하는 편이다"와 "대체로 하는 편이다"에 반응을 보인 학생의 비율합계가 17.5%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개 예습을 하는 학생이 영어를 다른 과목보다 더 쉬운 편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만약 예습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표-6] 예습에 관한 태도 (2)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18.8	11.6	6.3	10.1	5.8	3.7	9.4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해석해 본다	40.1	43.5	47.8	41.1	42.7	49.2	44.1
단어만 암기한다	21.5	23.4	24.5	26.4	27.5	22.4	24.3
그냥 한번 읽어본다	19.6	21.5	21.4	22.4	24.0	24.7	22.2

[표-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학년별로 큰 차이없이 44.1%에 해당하는 약 반수의 학생이 예습을 할 때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4.3%의 학생이 단어만 암기하고 수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그냥 한번 읽어 보는 것으로 그치는 학생은 22.2%로써, [표-5]의 예습을 안한다는 학생 22.0%와 거의 비슷한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해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9.4%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나마 그것도 중학교 1학년 18.8%에서 중학교 3학년인 경우 6.3%로써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예습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여 영어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물음은 복습에 관한 것이다.

7) 영어수업 후에 복습을 합니까?

[표-7] 복습에 관한 태도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반드시 하는 편이다	14.6	10.7	5.6	5.2	4.9	4.1	7.5
대체로 하는 편이다	15.1	8.9	7.5	6.3	5.2	12.4	9.2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52.3	60.2	59.7	52.7	60.1	64.2	58.2
거의 안한다	8.6	13.2	10.3	12.3	15.6	11.6	12.0
전혀 하지 않는다	9.4	7.0	16.9	23.5	14.2	7.7	13.1

[표-7]에 나타난 각 항목별 반응율을 보면, [표-5]에 나타난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에서 복습을 “반드시 하는 편이다”와 “대체로 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학생은 대체로 복습을 하는 학생인데, 이와 같은 학생이 모두 16.7%로써 [표-5]에서 수업 전에 대개 예습을 하고 있다는 학생 17.5%와 거의 비슷하며 무계획적으로 복습을 하는 학생도 58.2%로 역시 예습을 무계획적으로 하는 학생 60.5%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대체로 상급 학년일수록 복습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예습을 하는 학생이 고학년일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개 복습을 하는 학생은 예습을 하고 있으며 예습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복습도 대체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를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다.

8) 영어를 처음 배울 때에 비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표-8] 학습의욕의 비교

내 용	중 · 고 별		학 년 별			전 체 평 균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더 쉬워지는 것 같다	20.4	16.2	12.1	7.9	7.4	3.7	11.3
처음 배울 때와 같다	22.0	23.6	24.7	37.1	35.0	26.6	28.1
더 어려워지고 있다	57.6	60.2	63.2	55.0	57.6	69.7	60.6

[표-8]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영어를 처음 배울 때와 비교하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고 “더 쉬워지는 것 같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작 11.3%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학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는 배울수록 점점 어려워져 가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흥미도 차츰 잃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3 영어교과활동의 과제



필자는 앞 절에서 현재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과활동에 대한 태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했다. 이번에는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영어교과활동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다.

우선 [표-1]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과제는 흥미있는 영어교수-학습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나 영어를 배운 지 1년 내지 2년이 되기도 전에 흥미를 잃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또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의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부분이 영어라는 과목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되는데, 교사는 이점을 잘 선용하여 학생의 심리에 맞는 교수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수업에 환멸을 느끼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게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정정섭(1975)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① 학생을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것. 곤란과 당황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서로 그 본질이 다른 것이다. 학생이 곤란을 당하는 일은 자주 있을 것이나 절망적 당황으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
- ② 학력의 진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은 자기 학력이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흥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 ③ 경쟁심을 조장한다. 선의의 적당한 경쟁심은 학습에 더욱 더 열의를 내게 할 것이다.
- ④ 유희적 연습문제를 과할 것. 게임(game)을 통한 연습문제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한다.
- ⑤ 변화. 학습활동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흥미를 증진시킨다.⁸⁾

한편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떠한는 질문에 따른 설문을 분석한 결과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 조차도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게 생각되는 주요 원인은, 물론 영어가 외국어라는 점도 있지만 학년이 높아갈수록 단계적으로 교재내용은 어려워져 가는데 비해 그날 그날의 언어학습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를 배울 때에는 반복학습이 필요하지만 반복학습은 권태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교실환경으로 보아서 한 학급에 약 50여명의 학생이

8) 정정섭, 「외국어 교육」(서울: 학문사, 1975), pp. 91-92.

개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똑 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각기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교수활동을 하기 이전에 영어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인 인성, 정서, 감정, 동기 및 태도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해 세심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좌석배치에 있어서 능력있는 학생과 조금 수준이 낮은 학생들끼리 학습조를 편성하여 서로 협조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방법, 평균수준의 학생에 맞추어 교수하는 법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Finocchiaro(1965)는 그의 저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rom Theory to Practice*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Some students are very able, others are quite "slow."

- a) Make use of the abilities of your students. For example, have the more able students go to the blackboard for dictations and aural comprehensions. Have them recite first after you give the model so that other students will be exposed to reasonably correct answers. If you also provide activities in which the less able students can achieve success (doing the simpler pattern practice exercises at the board; coming to the front of the room, indicating pictures or objects, and calling on a classmate; helping to grade papers based on a model), there will be no question of lowered morale on their part.
- b) Ask the more able students to help the less able students in such activities as preparing assignments or writing compositions.
- c) Seat able students next to "weaker" ones so that the latter will be sure to hear more reasonably accurate pronunciation.
- d) Gear your lessons to the "average" students. Move forward to another

unit of work as soon as the majority of students have grasped the content of the one you are teaching. Do not slow down for the less able students but make provision for giving them help at their stage of language learning in order that they may catch up to their classmates.

Since language learning is cumulative and since the reintroduction of learned material is a basic principle of current teaching practice, the less able students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learn—with ever-increasing thoroughness—some language item they may not have grasped fully the first time.

- e) Differentiate your assignments. The “slower” students should write out many pattern practice exercises; the more able students can answer questions, formulate questions to be asked of their classmates, write summaries, or prepare dialogues.
- f) Don't expect all students to reach the same level of comprehension and of oral production in the same length of time. Some will have to stay at the repetition and pattern practice stages longer than will others.⁹⁾

설문 4)의 분석 결과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간에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

이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교사와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는 이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교사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운

9) Mary Finocchiar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rom Theory to Practice*, (Regents Publishing Co., INC., 1965), pp.118-19.

데 인간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여 수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¹⁰⁾

사실 중학생의 학습심리¹¹⁾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학교의 연장으로 학생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2학년이 되어가면서 좀 달라지고 3학년이 되면 활발한 반응이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교사의 의도대로 반응하는 학생은 수업 후에 동급생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의 수업전개는 지극히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여러가지 학생지도(guidance)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교사는 학생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고 학생을 학습에 끌어 넣어 활발한 반응을 보이도록 적절한 유도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예습에 관한 설문 5)의 분석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 전에 예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과목이 전부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어인 영어는 새로운 언어습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전에 예습을 하지 않고서는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과목에 대해 학생 혼자서 하는 자습은 발음에 있어서나 의미에 있어서 자기 방식의 선입견을 독단적으로 형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습을 시킨다거나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반론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기 몇 분전 다음 시간의 학습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이해케하여 학습방법을 미리 제시한다면, 잘못 읽고 이해하는 선입견

10) 현대 외국어 교수법에서도 이론적으로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해야 습득이 된다는 인간주의적 접근방식(humanistic approach)이 강조되고 있다.

11) 고광만, 「영어 교수법」(서울: 신구문화사, 1963), pp. 345-46.

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영어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외국어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단어(words)나 구(phrases) 또는 문장(sentences)을 암기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선 영어가 모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암기해야 효과적이라는 점은 다음 Lado(1964)의 글에도 시사되어 있다.

The command of a language is not a matter of knowledge: the speakers are quite unable to describe the habits which make up their language. The command of a language is a matter of practice. One might memorize the notes and chords which make up a certain piece of music, but one would then still be utterly unable to play the piece until one had practiced it over and over again for many hours. The same thing is true of a language. It is helpful to know how it works, but this knowledge is of no avail until one has practiced the forms over and over again until one can rattle them off without effort. To understand the forms is only the first step. Copy the forms, read them out loud, get them by heart, and then practice them over and over again day after day, until they become entirely natural and familiar. Language learning is overlearning: anything less is of no use¹²⁾

그러나 아무리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억력이 왕성한 시기라 할 지라도 기억의 폭(memory span)은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단순한 문장 정도를 암기하고 번역하고서는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2) Robert Lado,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Inc., 1964), p. 94.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의사소통능력은 영어의 기본적인 단위인 단어나 구, 그리고 개별적인 문장(sentence in isolation)에서 이들이 서로 섞인 배합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향상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현재 영어교육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바탕을 둔 듣기·말하기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준비 단계로 가정에서 녹음기(tape recorder)를 통하여 여러번 듣고 오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문장에서 복합적인 문장으로 전이할 수 있는 단계를 설정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수-학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본 장에서 필자는 영어교과활동에 대한 설문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영어교육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영어교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다음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현장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다.

제 4 장 현장 영어교육의 문제와 해결책

오늘날 영어교육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단순한 언어능력의 습득만이 아니라 언어를 실제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는, 즉 의사전달(communication)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어 교사들은 이같은 영어교육의 최근 동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상 실제 교육현장에는 그같은 흐름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그 문제점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교수·학습면, 교재의 측면, 평가의 측면, 교사의 측면 그리고 시설과 환경 등에서 종합적으로 노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이 이들 여러 측면은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련이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더욱 필요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영어교육상 문제가 되는 이러한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의 여러 문제 중 시설과 환경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바, 여기서는 영어교육의 최근 경향에서 바라 볼 때, 우리가 노력만 하면 개선이 가능한 교수·학습상의 문제, 교재의 문제, 평가상의 문제, 교사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

4.1 교수·학습상의 문제와 해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영어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별로 없어, 웬만큼 영어를 공부해도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외국잡지나 소설을 읽을 경우 단어나 구문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 단어나 구문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 요인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교수·학습상에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필자가 조사한 설문지 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교수·학습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 관점에서 수업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지 답하도록 물었을 때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9] 중점 교수·학습의 분야

내 용	중·고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학 년 별	1	2	3	1	2		3
문 법		20.4	29.8	37.8	29.8	31.4	30.9	30.0
해 석		31.6	25.4	20.6	39.4	40.2	43.2	33.4
작 문		7.4	5.9	6.4	8.6	4.6	2.4	5.9
회 화 (듣기, 말하기)		34.2	35.6	32.4	12.4	10.7	19.6	24.2
기 타		6.4	3.3	2.8	9.8	13.1	3.9	6.5

[표-9]에 나타난 설문 결과를 보면 중학교에서는 듣기, 말하기의 비중이 전체의 34.1%로써 고등학교 14.2%에 비한다면,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어 교수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문법과 해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문법과 해석이 63.4%로 현재 현장에서는 문법-번역위주의 전통적인 교수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문법-번역위주의 수업에 치우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크게 반

론을 제기하지는 못할 형편에 있다. 교사들은 문법-번역식교수법이 오늘날 영어교육을 하는 제1차적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현장 영어교육은 아직도 문법규칙의 암기, 문장을 분석하는 식의 입시위주의 수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 즉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화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같은 결과는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제도상에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수 및 제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문제는 입학시험 출제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시에서 평가문제는 단순한 문법지식이 아닌 언어의 실제 사용, 즉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출제되어야 바람직하다. 입학시험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평가문제를 의사소통기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출제했을 때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전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오늘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문법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그 문법구조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을 실제 언어사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즉 목표어의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까지도 학습자로 하여금 알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손님을 초대할 집주인이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Ready?'라고 말하면 그것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이해시켜야 한다. 즉 'Would you like to come and eat now?'라는 의미를 공손하게 전하는 동시에 보다 공식적으로 'Ladies and gentlemen, dinner is served.'란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Littlewood(1981)는 외국어교육에서 증시되어야 할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네 가지 광범위한 기능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The learner must attain as high a degree as possible of linguistic competence.
- ② The learner must distinguish between the forms which he has mastered as part of his linguistic competence, and the communicative functions that they perform.
- ③ The learner must develop skills and strategies for using language to communicative meanings as effectively as possible in concrete situations.
- ④ The learner must become aware of the social meaning of language forms.¹³⁾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정작 필요한 기능인 듣기와 말하기가 학습자들에게도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영어를 공부할 때 듣기, 말하기에 중점을 두는 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표-10] 듣기·말하기학습 경향

내 용	중·고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상당히 중점을 둔다	7.6	8.4	5.2	4.2	5.9	3.2	5.8
중점을 두는 편이다	12.4	19.4	18.5	5.4	8.7	5.9	11.7
중점을 두는 편이 아니다	60.2	49.2	43.5	62.9	57.4	69.4	57.1
전혀 중점을 두지 않는다	19.8	23.0	32.8	27.5	28.0	21.5	25.4

13) William Littlewood,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6.

[표-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듣기,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영어 학습을 하는 학생(“상당히 중점을 둔다”와 “중점을 두는 편이다”를 포함)은 중학생인 경우 23.9% 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11.1%로 전체학생의 17.5%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듣기, 말하기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학습자의 학습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의 교수방법과 내용에 의해 학습자의 학습태도가 거의 결정된다고 생각한다.¹⁴⁾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방법과 내용을 오늘날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의사소통중심의 듣기, 말하기위주로 하여야 한다.

이같은 교육이 효과를 거두리라는 점은 학생들에게 영어수업 중 가장 흥미 없는 부문이 무엇이나고 했을 때 답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표-11] 분야별 흥미도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전 체 평 균
	1	2	3	1	2	3	
문 법	50.4	45.9	40.1	23.5	22.8	27.4	35.0
해 석	21.6	25.4	30.6	23.6	24.5	19.3	24.2
작 문	17.3	15.2	14.0	21.9	19.8	18.2	17.7
회 화(듣기, 말하기)	10.7	13.5	15.3	31.0	32.9	35.1	23.1

14) 이 점에 대해 정정섭(1975)도 교수란 학습자가 일정한 학습대상물을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사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교수활동 방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활동 양상이 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위에 나타난 (표-11)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 및 해석에 가장 흥미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회화에는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화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평이한 단어나 구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우리는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만 노력하면 쉬운 영어로도 간단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통해 신장된다는 점을 은연중에 알려줄 수 있다. 그런가운데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2 교재의 문제와 해결

교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영어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매개물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오늘날 영어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되게 편찬되어야 하며, 또한 난이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처한 환경적 요소나 능력, 그리고 흥미까지도 고려하여 학년간 연계성있게 편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어떠한가? 첫번째 문제로 영어교육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게 언어의 4기능을 숙달시키려는 의도로 구성은 되었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든다. 이같은 점은 교재의 난이도를 파악한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도 뒷받침 된다.

[표-12] 교재의 난이도

내 용	중 · 고 별		고 등 학 교		
	1	2	3	인문계	실업계
너무 어렵다	15.9	25.7	29.3	40.3	93.1
어려운 편이다	16.3	29.8	30.1	39.2	5.4
알맞다	50.3	30.2	25.4	14.6	1.3
쉬운 편이다	15.5	14.3	15.2	5.9	0.2

위의 설문 결과를 통해 현재의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에 비해 너무 난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학년일수록 교재가 자신의 수준에 비해 더욱 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이 교재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교재의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교재의 내용면에서 발견된다. 어디까지나 교재도 영어교육의 목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두어져야 함에도 현행 교과서는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묘사되는 살아있는 언어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Are you a boy?" "No, I'm not. I'm a girl."이란 대화를 보자. 소년 소녀의 뜻을 아는 학생이 여학생을 보고 "너는 소년이니?" 하고 묻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이런 대화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일평생 한 두번 들어보기가 어려운 문장이다. 또한 "You go to school."과 "Are you a boy or a girl?"이란 문장도 마찬가지로이다. 학교가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학교에 갑니다."라고 말한다 면 정말 이상할 것이며, 남학생인지 알면서 "너는 남학생이니?, 여학생이니?" 하고 묻는 것도 정말 이상하다.¹⁵⁾ 더구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 못지않게 교과서에

15) 임동원, 최진환,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 평가," 「교과서연구」 제8호, (서울: 사단법인 한국 2중 교과서 협회, 1990), p. 61.

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화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영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의 도구이며 영어가 사용되는 방법은 영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함은 물론, 영어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세계를 보는 방법을 포착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영어교육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과서에는 그같은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난이도의 해결을 위해 교재 제작시 학년별, 계열별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내용 중 대부분이 1,2학년 과정에 비중이 주어져 있는데, 1학년 교과서의 중간을 넘어서면 갑자기 어려워지고 2학년이 되면 그 차이가 심해지는 도약을 줄이기 위해서 3학년 과정에도 교육과정의 내용이 균형있게 내준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¹⁶⁾

하지만 이같은 작업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현장 영어교사들은 주어진 교재의 내용을 영어교육의 목표와 지역실정, 그리고 일상생활에 부합되는 교재로 재편집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재의 재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현길도(1991)가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역할극 수업모형 연구”¹⁷⁾란 논제로 role-play 중심의 교재 구성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두번째로 교재의 내용에 대화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측면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다루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론, 영미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점차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영미인의 문화를 반영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우리 문화와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Ibid.*, pp. 62-63.

17) 현길도,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역할극 수업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교과서의 기본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제주지방의 자연적 아름다움이나 고유의 제주문화를 소개하는 교재를 발간하고 또한 이에 따른 교사용 지침서를 만들어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정의적인 교육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영어구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는 현재 발간되어 있는 「제주관광영어」지도자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가 보기에 그 교재는 구성면에서 약간 단순하며 또한 문어체적인 성격이 드러나 이를 간단한 대화와 상황중심으로 편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문화를 학생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교재를 작성, 실제 교육현장에서 특활 및 보조교재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교재의 각 단원마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상황 설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 중심으로 구성하되 모범회화(model conversation)를 제시한다. 또한 심화학습(further study) 단계를 설정하여 여기에 대화내용 중 활용도가 높거나 설명을 요하는 단어나 어구, 문법구조 등을 선정하여 언어표현의 기능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학습자의 이해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듣기와 말하기 테스트 단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활동은 어떠한 상황을 벗어나 생각할 수 없고 상황과 표현이 관련되어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자원이 제시된 그림만 보고도 어떤 상황이며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교재 제작시 충분히 삽화를 넣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태만이라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하나의 책속에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고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의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작시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 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재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활발히 조정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관광영어」 지도자료 제2집 중 단원 28. Around Sanbangsan¹⁸⁾를 다시 작성하여 제시하면 부록에 첨가한 유형과 같다.

다음으로 교재의 문제 중에서 보조교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교과서 내용을 수록한 녹음테이프를 보면 단지 듣고 따라 읽는 정도로 편집되어 있다. 따라서 테이프 제작에 있어서도 적절한 상황을 부여 해결하도록 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흥미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사실 보조교재는 본교재 못지 않는 중요성이 있다. 김순택(1986)이 보조교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듯이 간단한 자료라 할 지라도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교육공학의 시대가 도래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보조도구로 필름을 이용한 슬라이드와 영화를 제작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통해 영어교육에 있어 특히 영어사용 국민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언어 사용의 실제적인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주고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이같은 시대에 발맞추어 현장에서도 적절한 보조교재를 마련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1990년도에 제주도 교육연구원에서 모델수업 영상자료를 개

18)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관광영어」 제2집, (제주: 경신인쇄사, 1985), pp. 44-46.

19) 김순택, “국제화와 제주도 영어교육,” 「제주문화의 재조명」 (서울: 일남사, 1986), pp. 27-28.

발하여 현장에 보급 시킨 것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앞으로 역할극 (role-play), 게임 (game), 미니드라마 (mini-drama)를 통한 영어교육의 모습을 영상화해 현장에 보급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4.3 평가상의 문제와 해결

평가의 기본 목적은 교사의 학습지도와 학생의 학습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의 목표에 따라 여러가지 방면에 있어 학생의 성장 및 발달을 측정하는데 있다. 특히 평가는 우리가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교수한 여러가지 영역과 여러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평가상의 유의점 9개항목을 보아도 이같은 점을 알 수 있다.

- (1) 언어 기능의 4영역을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 (2) 각 언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의 학습 의욕이 올바르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 (3) 평가 목표에 따라 부분평가와 통합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한다.
- (4)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것은 피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하도록 한다.
- (5) 언어에 관한 지식보다 언어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6) '듣기' 평가에서는 의미의 파악 및 들은 내용의 기억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7) '말하기' 평가에서는 의사 전달 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두되, 발음, 어휘 및 구문 사용 등의 유창도 및 정확도도 평가한다.
- (8) '읽기' 평가에서는 글의 줄거리, 요지, 주제, 내용 등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9) '쓰기' 평가에서는 정확한 구문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²⁰⁾

20) 문교부, 「외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영어 I, II)」(서울: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pp. 211-31.

오늘날 영어교육의 시대적 요구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영어를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영어교육의 목표아래 평가도 그 목표에 부합되게 언어의 4기능을 고루 평가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분야에 평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그 자체에 목적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언어 숙달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평가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평가의 의의를 찾을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의 수업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바람직 한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영어평가가 되는 오늘날 어떤 식으로 영어평가를 하면 좋을 까? 영어 교수 이론이 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평가방법이나 평가영역도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현장이나 입학시험에서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평가가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필자는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싶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듣기, 말하기 평가의 실시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에게 학교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실시하는 지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표-13] 듣기·말하기평가 여부

내 용	중·고 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듣 기	한 다	15.4
	안 한 다	84.6	96.7
말 하 기	한 다	0	0

위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듣기, 말하기 평가는 현장에서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학교인 경우 약 15% 정도 실시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가 고작이다. 고등학교인 경우 거의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그나마 전체의 15%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1985학년도부터 고입 연합고사에 약 20%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입학시험에서 평가되고 있는 문항을 보면, 독해력과 문법구조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며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쓰기와 듣기는 평가의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다. 더구나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듣기, 말하기 중 말하기 능력의 평가는 실제로 전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필자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는 본래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영어평가를 새로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수업시 3분발표회를 실시하여 그것을 평가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 자체에서 듣기평가의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며 우수학생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한다.

셋째, 평가란 원래 교수내용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선결 문제는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고입 연합고사의 경우에는 약간의 듣기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입 학력고사에서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학시험에 생활영어 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고 듣기-말하기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중도 크게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시설상의 문제나 다인수 학급 같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구나 1994학년도 부터

대학입학시험이 대학 자율에 맡겨 실시²¹⁾하게 되므로 현재 대학에서는 어학실습실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방송체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상의 영어평가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현재의 교육현장과 입시에서의 평가는 최근 영어교육의 목표와 평가의 취지와는 다소 부합되지 못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우리 영어 교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교육당국과 교사, 학생이 모두 오늘날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성해보고 개선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4 교사의 문제와 해결

영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영어교수법에 대한 많은 이론을 터득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오늘날 영어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 교사는 아직 교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교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영어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고 영어사용권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때, 영어 교사는 영어구사력은 물론 외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한·영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의사소통에 적지않은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friend'란 단어도 한국에서는 아주 친한 사이에만 사용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직장, 취미, 오락, 사회활동 등을 단위로 선배나 후배를 포함하여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사용된다는 문화적인 배경을 인식하여야 한다.

21) 「동아일보」 1991년 4월 2일자, 1, 8면.

그리고 우리 영어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극배우'가 되어야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영어수업시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교실수업을 현장감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고, 실제 학생들에게 영어 모국어화자(native speakers)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는 유능하고 열성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

Rivers(1968)가 제시한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다음과 같은 7가지 능력은 우리 현실과 결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 (1) 의사 소통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청취 능력이 있어야 한다.
- (2)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3) 영어 자료를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4)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5) 영어에 대한 분석력, 즉 음성학적, 음운론적인 언어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6) 영어 상용 국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7) 영어교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²²⁾

앞에서 필자는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어 교사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필자도 제주도 중등 영어 교사의 한사람으로 위에 언급한 영어교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영어 교사는 교수상황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영어 교수의 경향과 발전과정을 인식하여 영어

22) Wilga M. Rivers,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68), pp. 381-83.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 영어 교사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직접 교사들에게 묻지 않고 학생들에게 물어 본 이유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필자 나름의 생각에서였다.

1) 선생님의 영어회화 능력은?

- ① 아주 훌륭하다 ② 잘 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2) 수업시 선생님의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사용 빈도는?

-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가끔 있다 ④ 전혀 없다

3) 수업시간 중에 시청각자료(flash cards, picture cards, tape recorder, V.T.R. etc.)사용 여부는?

-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가끔 있다 ④ 전혀 없다

4) 선생님과 학생간에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는?

-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가끔 있다 ④ 전혀 없다

5) 선생님이 외국인을 초청하여 영어로 대화하는 기회는?

-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가끔 있다 ④ 전혀 없다

[표-14] 영어 교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질 문 내 용		반 응 율
1) 영어회화 능력	아주 훌륭하다	9.4
	잘하는 편이다	25.6
	그저 그렇다	65.0
2) 교실영어 사용 빈도	아주 많다	20.5
	많은 편이다	19.3
	가끔 있다	29.2
	전혀 없다	31.0
3) 시청각교재 사용 빈도	아주 많다	50.4
	많은 편이다	27.0
	가끔 있다	17.1
	전혀 없다	5.5
4) 학생과 영어로 대화하는 빈도	아주 많다	10.3
	많은 편이다	16.9
	가끔 있다	68.7
	전혀 없다	4.1
5) 외국인과 대화 기회부여 빈도	아주 많다	0
	많은 편이다	0
	가끔 있다	10.4
	전혀 없다	89.6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우리 영어 교사들의 영어구사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며, 또한 교실영어 사용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시간 중에 시청각자료 사용은 대체로 많이 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간에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번씩 한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어인 영어의 구사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문법-번역위주의 교육을 받은 결과 영어 교사 자신의 영어구사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도 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개발과 교수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관계 당국에서는 영어 교사의 해외연수를 대폭 증가시켜 영어 교사로 하여금 모국어화자(native speakers)와 현지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청취능력 배양은 물론, 영어교과 학습지도 및 교수방법에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타도보다도 훨씬 외국어 학습 및 훈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최고 교육기관인 제주대학교에 외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가칭 외국어 교사 교육 센터(Center for Foreign-Language Teacher Education)를 설립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각종 기자재와 자료를 비치함으로써 정보 및 자료제공은 물론, 연수활동을 통해 교수방법 개발과 교사를 훈련시킴으로써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³⁾

23) 이와 관련하여 김순택(1989)은 “제주도 영어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란 논문에서 제주도의 영어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시설과 외국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토속 언어의 교육센터 등 Training Center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도울 Island Cultural Foundation같은 것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의 영어 교과 활동에 대한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여,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영어 교과 활동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으며, 또한 오늘날 영어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 문화이해라는 점에서 볼 때 제주도 현장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영어교육의 목표와 최근 영어교육의 경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교과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장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교수·학습면, 교재의 측면, 평가의 측면, 교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 교과 활동에 대한 설문 결과는 처음에는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영어학습에 임하다가 학년이 높아갈수록 흥미를 잃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사의 교수방법, 학생의 학습방법, 교재의 난이도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하면서 오늘날 영어교육의 목적과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집약된다.

이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제주도 영어교육현장에서는 여러면으로 유의해야 할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수·학습상에서 현재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오늘날 영어교육을 하는 제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아직도 현장 영어교육은 문법규칙의 암기, 문장분석 등의 그야말로 입시위주의 교수와 학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교과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고, 교재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영어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두어져야 함에도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묘사되는 살아있는 언어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화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수록한 녹음테이프와 같은 보조교재 또한 단지 듣고 따라 읽는 정도로 편집되어 있다.

셋째, 영어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 중 듣기와 말하기의 평가가 거의 없다.

넷째, 교사의 측면에서 볼 때,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영어구사력이 좋아야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교수·학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 평가문제를 의사소통기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출제했을 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언어활용의 방향으로 정비되어야겠다. 따라서 입시 중심의 영어교육에서부터 활용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교육의 방향은 학문적 접근으로부터 학습자의 필요 및 동기유발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 따라서 언어에 관한 용법을 가르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언어사용의 방향, 즉 의사소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학습시 문장분석적 언어관 보다는 담화분석이나 사회 언어학적인 면에 무게를 두어서 형태, 의미, 기능, 사고, 문화를 상호 관련시켜 학습하도록 한

다.

둘째, 교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작시 학년별, 계열별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우리 교사는 교재를 영어교육의 목표와 학생들의 실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대화가 수록된 교재로 재편찬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신장의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고 현장에서 수업시 3분발표회 실시와 학교 자체에서 듣기평가의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시상 하도록 한다. 아울러 입학시험에서 생활영어 평가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듣기-말하기 평가를 도입하고, 그 비중도 크게 해야 한다.

넷째, 영어 교사 자신들이 학습자를 중히 여기고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아 자신의 능력개발과 교수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관계 당국은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또한 외국어 교사를 훈련시킬 외국어 교사 교육 기관인 가칭 외국어 교사 교육 센터(Center for Foreign-Language Teacher Education)가 설립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광만, 「영어교수법」, 서울 : 신구문화사, 1972.
- 김순택, “제주도 영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89.
- , “국제화와 제주도 영어교육,” 「제주문화의 재조명」, 서울 : 일념사, 1986. 동아일보, 1991년 4월 2일자, 1, 8면.
- 문교부,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영어 I, II)」,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 신성철, 박의재, 「영어교수법」, 서울 : 한신문화사, 1987.
- 이영식, “Communication으로서의 영어교육,” 「영어교육」 제31호, 서울 : 한국영어 교육학회, 1986.
- 임동원, 최진황,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 평가,” 주순호(편), 「교과서연구」 제8호, 서울 : 사단법인 한국 2종교과서 협회, 1990.
- 정정섭, 「외국어교육」, 대구 : 학문사, 1981.
-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관광영어」 제2집, 제주 : 경신인쇄사, 1985.
- 조명원, 「현대외국어교육」, 서울 : 한신문화사, 1981.
- Allen, H. B. & R. N. Campbel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72.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Canale, M.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Richards, J. C.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1983.
- Corder, S. P.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Harmondsworth : Penguin, 1973.

- Finocchiaro, M.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 A Guide for Teachers by Michael Bonom*,
New York : Regents Publishing Co., 1973.
- Finocchiaro, M. & C. Brumfit,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Gardner, R. C. & W. E. Lambert.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Publisher, 1972.
- Huebener, Theodore. *How to Teach Foreign Languages Effectivel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9.
- Lado, R. *Language Testing*,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4.
- . *Language Teaching :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 McGraw-Hill, Inc.,
1964.
- Littlewood, W.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 An Introduction*, Cambridge : Cam-
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Paulston, C. B. "Linguistic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Vol. 8, No. 4, 1974. pp. 347-62.
- Rivers, W. M. *The Psychologist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64.
- .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68.
- . *Communicating Naturally in a Second Language: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Taylor, B. P. "Teaching ESL: Incorporating a Communicative, Student-
Centered Component," *TESOL Quarterly*, Vol. 17, No. 1, 1983. pp. 69-88.
- Widdowson, H. G.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of English Education
and An Avenue for Its Improv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Cheju —

Kim Chan-ho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taek

The ultimate aim of recent foreign language teaching is communication. Much time and effort has been put into teaching English to students, without noticeable results.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many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can hardly speak even simple English when they meet 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English education and provide an avenue for its improvement in Cheju-do. This study is mainly concerned with finding problems in English education of Cheju-do and answering them.

To achieve the above goal, first of all, this thesis examines some current notion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 recent tendency in English education. Second, some problems are posed, which should be solved in

teaching-learning English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in secondary schools of Cheju-do. Third, some concret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English education are provided to help the students in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this, 1,200 students, attending 4 middle schools and 4 high schools in Cheju-do were asked some questions about English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hrough questionnaires.

The concrete problems drawn from such a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In the first steps of learning English, most of the English-learners tend to have an interest and curiosity in English. It is, however, strange that as time passes, they are gradually apt to neglect or give up learning English itself.

So, to solve this problem, teachers should be aware of the psychology of the students, particularly educational psychology.

- 2) Teachers stick to traditional grammar-translation as their method.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has been popular in English education, but recently development of listening and speaking ability has been greatly emphasized in teaching English.

So, teachers should try to develop some types of testing for improving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lso should be improved, by giving students oral tests.

- 3) Textbooks are very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learn. So, they should be written after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abilities and interests. It is also important that teachers should rewrite current textbooks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Especially, we need to publish teaching aids which can introduce the unique culture of Cheju, an international tourist resort. If these materials are used in English class,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will be greatly improved.

- 4) Even though there exist limitations, such as the teacher's poor command of spoken English, teachers should put great stress on language use rather than language usage. They should try to get acquainted with English teaching theory,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command of living English through an opportunity such as a teacher in-service training program. The authorities concerned must give teachers many chances for overseas service training.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what we will tentatively call, a "Center for Foreign-Language Teacher Education" in Cheju-do.



부록 I. 제주관광영어 지도자료안

SANBANGGULSA

This temple near Sagye-ri, Andök-myön on the southwest coast, has been built in a natural grotto half way up a steep mountain. It is about 26km, west of Sögwip'o City. It's reputed to be one of the twelve most beautiful sights in Cheju-do. The view from the grotto over the coastal fields and offshore waters is spectacular. Cold, clear mineral water trickles out of a cleavage in the rocks, and just one sip of this water is supposed to insure a long life. We have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A. Model Conversation

Useful expressions

- 1) Excuse me, May I help you?
- 2) Could you tell me about the legend?
- 3) Uh- huh, I'd like to go there.

Situation 1. At Sanbanggulsa



The scenic panorama viewed from the entrance of the Sanbanggulsa.

T: Hello, Can you tell me about the legend of Sanbanggulsa?

S : Sure, Long ago, beautiful girl
 came out of this mountain.

T : Her name, please?

S : Oh, Sanbangdök. She married a handsome farmer,
 named Ko-söng. They lived happily for a few years,
 then... Sanbang met a problem.

T : What's that?

S : One day, a high-ranking man was attracted by her beauty.

T : Then?

S : He sent her husband away and tried to take her as his wife.

T : And next?

S : She refused, and ran away to Sanbang grotto.
 Disappointed in the real world, she became the goddess of Sanbangsan.

T : Wow ! Interesting and sorrowful.
 Is this huge rock Sangbang-dök?

S : Right. you have a good imagination.

T : Thanks. Oh, look ! Water dripping.

S : It is her tears, dripping in deep sorrow.
 She is longing for her husband now.
 What do you think of this story?

T : Very sorrowful, and I think she was very honorable.

S : Yes, Honor is the symbol of Cheju woman.
 Look over there !

T : Wow ! beautiful scenery !

S : This is one of the 12 most beautiful sights of Cheju.



T : Who are they?

S : You mean "those women in black"?

T : Uh-huh.

S : Called "Haenyo" in Korean; Usually they catch seaweed, octopus, abalone, and other many kinds of shell fish.

They're very diligent. Traditionally, women in Cheju are very hardworking.

T : Thanks for so kindly telling me. I'm hungry.

S : Do you want to get something to eat?

I know the best local dining room.

T : Ok, let's go there.



A woman diver displaying the live octopus she has just caught.

Situation 2. At a dining room

W : (Ask customers what they want to eat.)

S : Mr. Paul,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T : What kinds of food?

S : Look at this menu first. I recommend "okdom soup".

T : OK, I'll have it.

S : I'll tell you about Cheju's local f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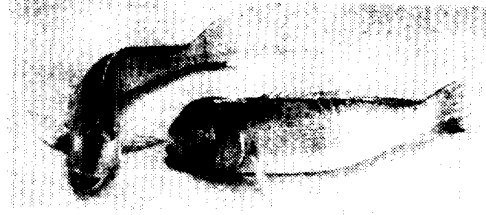


In Korea, rice must be included in a meal but in Cheju, soup is the main dish. Especially, okdom-guk (sea-bream soup) and songgae-guk (sea-urchin soup) are Cheju's main traditional dishes. People catch many fish and we eat raw fish, called "sasimi" (a Japanese word). In Korean, it is called "saengsŏn-hoi". Abalone and conches are also abundant and popular.

T : I want to eat all.

S : What do you think of this okdom-guk soup?

T : Well, it's a splendid meal.



B. Mini-drama

Characters: Governor (GV), Sanbang-dök (SB), Secretary (ST)

Scene: Sanbang-dök was forced to come to the Governor. She knelt down before him. Beside the Governor stood his policemen in ancient uniforms. when they saw her beauty they lost their senses.

GV : (He is stunned at Sanbang-dök's beauty) Hmmm. Are you Sanbang-dök?

SB : (Giving a deep bow) Yes, sir, I'm Ko-söng's wife. I live in the village.

GV : Ko-söng?(Pointing to the secretary) Who's Ko-söng?

ST : He is a farmer and lives with his sick old mother.

GV : Farmer? Ah I see. Sangbang-dök, go back to your home. I'll call you again. (Sangbang-dök goes away and the governor calls his secretary)
Uhm. In all my life I have never seen woman so beautiful as Sanbang-dök.

I wish I could make her my wife. What should I do?

ST : But, Governor, How can you have another man's wife?

GV : (He springs to his feet and pushes his secretary in fierce anger)
Get out of my way.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don't you know?

ST : But that is asking too much, isn't it?

C. Functional expressions

Greetings

A : Good afternoon. sir, You look like a stranger here. (More formal)

B : Right, I arrived in Cheju yesterday

A : Hello, Is this Sanbanggulsu? (formal/informal)

B : Yes. Are you a tourist?

A : Hi ! Isn't it a nice day? (even less formal)

B : Oh, It couldn't be better.



Admirations (Feelings)

A : Do you like to eat Saengsŏn-hoi?

B : Uh-huh. (= Yes.)

A : Can you drive a car?

B : Uh-uh. (= No.)

A : I've never been to a doctor in my life.

B : Wow ! (= Really?)

A : Shall we walk or take a taxi?

B : Hmm.

A : Please hurry up and decide.

B : Oh, let's take a taxi.

D. Evaluation

(A) Fill in the blank with suitable expressions.

Q : Where is Sanbanggulsa?

A : _____.

Q : _____ ?

A : It is about 26km from Sŏgwip'o.

(B)

1) Imagine that you have just met a foreigner near Sanbanggulsa.

Briefly explain some information of the temple's historical background.

2) Ask him how Cheju's local foods are.

3) Ask him what kinds of food he likes to eat.



부록 II. 영어교과학습활동 설문지

본 설문지에 의한 조사는 여러분의 성적이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어 교과 학습 활동을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쓰여질 것이므로 다음의 물음에 솔직히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설문에 대하여 학생 여러분의 적합한 내용 하나를 골라 ()안에 V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학생은 지금 몇 학년입니까?
① 중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⑥ 고3()
2.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는?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3.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고등학생만 해당)
① 인문계 고교() ② 실업계 고교()
4. 학생은 영어수업시간이 어떻습니까?
① 대단히 재미있다() ② 재미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지루 하다() ⑤ 매우 지루하다()
5.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어떻습니까?
① 더 쉬운 편이다() ②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이다()
③ 더 어려운 편이다()

6. 학생은 영어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① 거의 전부 이해한다() ② 거의 이해되나 종종 모르는게 있다()
 ③ 거의 이해가 안된다() ④ 전혀 이해가 안된다()
7. 영어수업시간에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① 선생님께 질문한다() ② 친구에게 물어본다()
 ③ 참고서를 본다() ④ 모르는 채 놔둔다()
8. 학생은 영어수업시간 전에 예습을 합니까?
 ① 반드시 하는 편이다() ② 대체로 하는 편이다()
 ③ 거의 반반이다() ④ 거의 안한다() ⑤ 전혀 안한다()
9. 만약 예습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①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②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을 해석해 본다()
 ③ 단어만 암기한다() ④ 그냥 한번 읽어본다()
10. 영어수업 후에 복습을 합니까?
 ① 반드시 하는 편이다() ② 대체로 하는 편이다()
 ③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④ 거의 안한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11. 영어를 처음 배울 때에 비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① 더 쉬워진 것 같다() ② 처음 배울 때와 같다()
 ③ 더 어려워지고 있다()
12. 1시간당 학습하는 교과서 내용의 분량은?
 ① 너무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알맞다()
 ④ 적은 편이다() ⑤ 아주 적다()
13. 교재내용은 나의 수준에 비교해 보면?

- ① 너무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적게 한다()
22. 수업시 선생님의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 사용 빈도는?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가끔 있다() ④ 전혀 없다()
23. 선생님의 영어회화 능력은?
 ① 아주 훌륭하다() ② 잘 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24. 수업시간 중에 시청각자료(V.T.R, flash cards, picture cards, tape recorder etc.) 사용 여부는?
 ① 아주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가끔 있다() ④ 전혀 없다()
26. 듣기, 말하기 평가를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시한다면 1개월에 몇번 정도 실시하는가?
 ① 한다() _____ 번 ② 안한다()
27. 듣기, 말하기 시험은?(듣기,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알맞다()
 ④ 쉬운 편이다() ⑤ 아주 쉽다()
28. 듣기, 말하기 시험은 여러분의 영어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